

## 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새롬고등학교
동아리(팀)명	Herstory Mystery History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동아리 명 : Herstory Mystery History

양성평등과 서로간의 존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남성주의사회였다. 그로인해서 남성들이 주로 정치계에 진출하였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과거 남성 중심, 승리자 중심의 역사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비주류 세력은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에 재조명받고 있는 역사적 사실 및 쟁점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인물과 사건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Herstory Mystery History” 라고 지었다. 동아리 명의 Herstory는 사회적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역사를 의미하며, Mystery와 History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역사를 알고, 또 그런 역사를 함께 기록해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역사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많지 않고,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아리 창단 취지에 맞추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석하고, 독도를 수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송은영	2	동아리 활동 계획 및 총괄
2	류원정	2	영상물 촬영 및 홍보물 제작
3	박시은	1	동아리 회의 조직 및 진행
4	박진호(변경 전) 최주익(변경 후)	1	회의 결과 기록 및 의견 취합
5	이재준(변경 전) 김유진(변경 후)	1	활동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

- 주제 선정 이유 : 새롬고등학교에는 독도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교내 대회가 다수 열릴 뿐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따라서 타교 학생들에 비해 독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교내에서 독도사랑 에코백 만들기, 독도전시관 관람 보고서 작성 대회 등 다양한 독도 관련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실천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활동이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실천적 활동을 통한 학교현장에서의 독도 홍보를 활동 주제로 선정하고, 동아리 활동을 계획할 때 실천적·참여적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다. 주제를 위와 같이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결과물을 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몸소 경험함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 활동 기간 : 2018.5.2. ~ 2018.8.9.

○ 추진 방법 : 4월 초 동아리 전체회의를 통해 연간 동아리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활동이 추진되는 시기에 맞추어 활동 시행 약 한달 전부터 이를 준비하였다. 활

동 준비물 구매, 동아리원간 세부 일정 조정 등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나누고 동아리원의 역량에 맞추어 분배하였으며, 동아리장이 이를 총괄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 도움을 구해 해결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① 독도 역사 왜곡 시정 촉구 대회 준비, ② 독도전시관 관리 및 관람 안내, ③ 독도 탐방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선정했고 새롬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세종 시내 유초중고 및 시민들에게 독도전시관과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4.4.	독도 역사 왜곡 시정 규탄 대회	새롬고등학교	 <p>▲ 독도 역사 왜곡 시정 규탄대회</p> <p>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자국 내 초중고 교과서에 관련내용을 실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실시하였다.</p> <p>새롬고등학교 전교생이 모여 학생회장단과 학부모 위원등의 인사들이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의 편향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독도사랑과 독도주권수호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p>  <p>▲ 독도 플래시몹</p>

			<p>성명서 발표 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추어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p>  <p>▲ 독도 사랑 문구 패널</p> <p>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는 독도 사랑 문구를 선정하고 패널을 제작하였으며 미니 태극기도 준비하여 대회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스태프로 활동하여 외부인사 안내 및 행사 준비와 정렬, 뒷정리 등을 하였다.</p>
2018.5.2. ~8.9.	독도전시관 관리 및 관람안내	세종시 교육청 독도전시관	<p>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는 새롬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독도 전시관을 맡아 독도전시관을 방문하는 세종시 관내 시민 및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도 수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전시관을 홍보 할뿐만 아니라 전시관을 이용하면서 독도에 대한 지식과 수호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시관 관리와 안내에 힘씀. 방문객들이 쉴 수 있도록 전시관 외부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전시관 내 독도모형과 실시간영상자료 , 최신기술을 접목한 독도체험기기 및 프로그램, 다양한 역사·지리적 사료 등을 전시한 독도전시관을 관리하여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함.</p>
2018.7.23. ~7.25.	독도 역사 지리 융합 캠프	새롬고등학교	<p>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인문자연환경을 미리 살펴보고 독도답사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지도를 활용하여 입체지형을 실제로 만들어봄으로써 지리환경을 상세히 탐색하였다. 독도에 대해 몰랐던 설화나 역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울릉도와 독도 탐방하기 전 독도와 울릉</p>

			<p>도에대한 지식을 더 쌓는 기회가 되었고 독도에대한 지리적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p> <p>이론적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도답사와 연결시켜 생생한 교육, 이론과 체험이 어우러지게 하였다.</p>
2018.7.26. ~7.28.	울릉도 독도 탐방	울릉도, 독도	<p>독도교육 활성화와 울릉도와 독도사랑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주최한 2018 독도교육 실천 우수교원 및 학생 독도 탐방에 참여하였다.</p> <p>독도 탐방의 목적은 ①체험중심의 독도교육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독도주권 수호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②독도교육 실천 우수교원 및 학생들의 교류와 정보교환,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독도교육 활성화다.</p> <p>울릉도의 거북바위, 사자바위 등을 답사하며 관련된 역사적 설화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나리분지 답사를 통해 울릉도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해 탐구하였다.</p> <p>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의 '국제법과 역사로 보는 독도'를 주제로 한 강연을 수강하였다.</p> <p>동도 동도를 방문하여 독도의 역사 및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해 탐구 하였다.</p>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Herstory Mystery History 활동 보고서	보고서	"실천적활동을 통한 독도알리기"라는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Herstory Mystery History 활동 요약서	보고서	독도 체험 발표대회 활동 요약서
3	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독도체험발표대회 새롭고등학교 Herstory Mystery History	영상	약 3개월간의 동아리 활동을 담은 영상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3개월간 활동을 했다. 주제와 관련하여 추진된 독도체험 활동으로는 ‘독도전시관 관리 및 관람 안내’, ‘독도 융합 캠프 참여’, ‘울릉도 독도 탐방’이 있다. 이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독도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애정 또한 생겨났다. Herstory Mystery History에서 추진한 활동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 1. 독도전시관 관리 및 관람 안내

세종시교육청 독도전시관은 특이하게 새롬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주말 등 관심만 있다면 학교 내에 위치한 전시관을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 학기 초 동아리 활동 계획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독도전시관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시관이 학교 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새롬고등학교만의 특징이자 다른 학교 동아리와는 차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였다. 우선 우리 동아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다. 여러 번 회의를 거친 결과 독도전시관 관리와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시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람 안내를 하자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우선 독도전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독도전시관 앞에 휴게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원들이 힘을 합쳐 테이블을 직접 설치하였다.



▲ 독도전시관 앞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모습과 독도전시관 내부 관람 안내

독도전시관은 주중에 항상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 전시관을 안내해주는 도슨트가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아리 내에서 쉬는 시간이나 혹은 점심시간에 전시관 관람을 안내하기로 했다. 관람 안내와 설명을 하기 위해 전시관에 전시된 전시물과 독도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친구들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면서 독도에 대해서 알렸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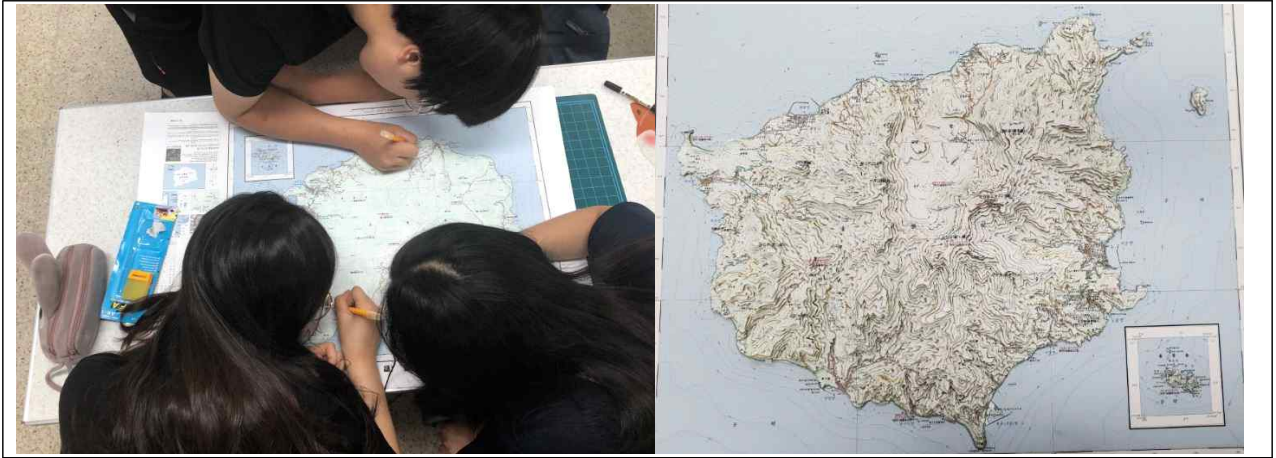
## 2. 독도 융합 캠프 참여

여름 방학 기간 중(7월 23일~25일) 독도 융합 캠프가 열렸다.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기 전 미리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난 후 실제 답사와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독도 캠프는 역사 교과와 지리 교과의 융합 캠프였다. 흔히 '독도 알리기'라고 하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만 떠올리기 쉬웠는데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정보를 함께 배움으로써 독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도 융합 캠프에서는 크게 3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었다.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와 설화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도를 활용하여 입체지형을 만들었다. 입체지형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입체지형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배웠다. 흥미로웠던 점은 똑같은 유적지에 대해 역사와 지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울릉도의 사자바위의 경우 지리에서는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설명했다면 역사에서는 우산국과 관련된 설화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배웠다.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종합하여 실제로 어떻게 답사가 준비되는지에 대해 배움으로써 실제 답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독도 캠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한다고 가정하고 답사계획을 세워보았다. 독도 캠프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설화들, 그리고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해 깊게 알아봄으로써 독도 답사의 기반을 다졌다.

독도 캠프의 결과 완성된 울릉도와 독도 입체지형은 독도전시관 내에 있는 독도 모형 옆에 전시될 예정이다.





▲ 여름방학 독도 융합 캠프 - 울릉도 및 독도 입체 지형도 만들기

### 3. 울릉도 독도 탐방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한 '2018 독도교육 실천 우수교원 및 학생 독도 탐방'에 참가하여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탐방을 가게 되었다. 그동안 교과서와 독도전시관,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보던 독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1일차에는 후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입도 한 뒤 통구미, 남양, 태하, 현포, 나리분지 등 울릉도의 서부 지역을 탐방하면서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답사하고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저녁에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소 소속 홍성근 박사의 '국제법과 역사로 보는 독도'특강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독도와 관련된 여러 나라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다.



▲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의 '국제법과 역사로 보는 독도'특강

2일차에는 울릉군 독도관리선인 독도평화호를 이용하여 독도 서도에 입도한 뒤 약 한시간동안 동도와 촛대바위, 삼형제굴 등 독도의 자연환경을 탐방하고 다시 울릉도로 돌아왔다. 일반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선착장에서만 약 20분정도 머물다 돌아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도 경비대가 있는 동도의 정상까지 올라갔으며 홍성근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독도를 답사하였다.



▲ 독도 동도 정상에서 Herstory Mystery History 단체 사진



▲ 독도 동도 정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과 단체 사진

3일차에는 독도 박물관, 안용복 충혼비 등을 탐방하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인문환경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해안 트레킹을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 원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에 맞서 현장에 직접 감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 울릉도 사자바위 앞에서 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 단체사진과 독도의 모습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원 및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다.

#### 1. 전 동아리원의 독도 사랑 의식 고취

100일간 독도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동아리원의 독도사랑의식이 크게 증진되었다. 동아리 원들이 활동 과정에서 독도와 관련해 지식을 접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체득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독도사랑의식이 고취되는 효과를 이루었다. 특히 울릉도·독도 탐방을 통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애정이 크게 증가했다.

#### 2. 학교 현장에서의 독도에 대한 관심 증진

일본 역사왜곡 시정 촉구대회와 교내 독도캠프 등의 활동이 교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관심이 증진되었다. 특히 촉구대회 개최 이후 독도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독도전시관이 상설 운영되어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다. 독도전시관 관리와 안내를 위해 독도 전시관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시관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교과서 밖의 독도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 원들과 교사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독도를 보다 친밀하게 여기고 이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 ○ 향후 계획

‘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00일 동안 활동을 했다. 동아리 활동과 세종시교육청 독도전시관이 지역신문, 뉴스 등 언론기관에 노출되면서 독도전시관 및 독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함께 증가했다. 지금까지 독도 체험 활동이 Herstory Mystery History가 주체가 되어 진행 되었다면, 향후 활동은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새롬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로, 학생과 교직원에서 세종 시민으로, 세종 시민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순차적으로 우선 새롬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즉, 동아리원이 중심이 되어 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종시교육청 독도전시관과 독도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또 쉽게 독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비롯하여 독도 배지를 제작 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도 구상 중이다.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송은영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잦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도의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심각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활동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제일먼저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모두들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왜 우리 땅인지 설명 못하는 사람들은 수도룩하다는 것 이였다. 그래서 나는 동아리 끼리 독도에 대해 활동을 하며 공부하기 보다는 이 기회로 우리 동아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실천적 활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고등학생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가장 먼저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학교 내에 있는 독도전시관의 운영위원회를 맡아 주위 학생들 과 시민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에 첫걸음을 뒀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독도교육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우리동아리의 이번 활동중 제일 핵심인 울릉

	<p>도와 독도 탐방은 나에게서는 평생 기억남을 것 들중 하나였는데, 독도의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했다. 독도를 직접 가보며 활동한이후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더욱더 논리적으로 설명할수있게되었고, 이런 아름다운 섬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우리 주위에 한사람이라도 우리동아리 로 인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면 난 정말 뿌듯할 거같다. 또, 우리동아리가 활동했던것처럼 다른 학교들도 점차 독도전시관을 늘려가고 독도에대한 행사를 계속시도하며 독도수호의지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p>
류원정	<p>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증거를 잘 알지 못했는데 올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명확한 증거를 알게 되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증거들을 동아리 시간을 통해 보다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에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다. 학교에서도 독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사도 해서 나 말고도 전교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나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조금 더 깊이 독도에 대해 찾아보고 배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하고 싶다.</p>
박시은	<p>‘실천적 활동을 통한 독도 알리기’를 주제로 독도 역사왜곡 시정 촉구대회와 교내 독도캠프, 독도·울릉도 탐방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독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특히 독도·울릉도 탐방이 가장 인상 깊었다. 탐방에서 촛대바위와 같은 독도의 독특한 경관을 보았고, 일정에 포함되어 있던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의 강의를 통해 1948년 독도폭격사건을 새로이 배웠다. 더불어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 전시관을 여러 차례 관람하고, 친구들에게 안내해주면서 독도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p> <p>활동 이전에는 막연하게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마친 후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도에 애정이 생겼고, 애정이 생기니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도 홍보에 힘쓰려는 마음이 들었다. 활동 전 독도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면, 활동 후 독도는 우리 민족의 기억이 담긴 꼭 지켜야 할 땅으로 다가왔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 홍보에 힘쓰고 싶다.</p>
최주익	<p>평소에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독도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지만 기회가 없어서 실제로 독도를 위한 활동을 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독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Herstory Mystery History 동아리에 들어와서 일본 독도 역사왜곡 시정 촉구대회를 개최</p>

	<p>하고 독도 캠프에 참여하여 울릉도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본 뒤 울릉도·독도 탐방에 참여하여 직접 독도를 밟아보면서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작지만 큰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p> <p>또한 독도 전시관 관리 및 관람 안내를 하고 울릉도·독도 탐방에서 독도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정확한 지식인지 확인하여 볼 수 있었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도 독도를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p>
김유진	<p>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땅 독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학교 내의 독도전시관을 통해서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독도전시관에 전시된,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나는 전시되어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들을 반성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역사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독도관련 체험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독도관련 체험들로 인해서 더욱 더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에서 주관했던 일본 역사왜곡 시정 촉구대회에서는 평소에 독도영토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일본 역사왜곡 시정 촉구대회 현장에 있었던 나는 앞으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름 방학 중에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독도캠프는 독도를 실제로 탐방할 때 필요한 탐방 계획서를 살펴보고 등고선을 따라서 지형을 관찰해보았다. 이를 비롯한 많은 체험들은 내 역사관련 진로를 확고히 해줬고 이후에도 나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p>

## 5. 건의사항

○ 다음 독도체험 발표대회 때에는 독도체험 활동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독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00일보다는 더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